

## 이창규 제10대 이사장 취임

지난 12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협회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강당에서 신임 이창규 이사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 이사장은 지난 12월 17일 사원총회에서 이사장에 선임되어, 12월 19일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날 취임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 이사장은 정축년 새해의 설계를 그려야 하는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나라 방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전임 이사장의 공적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화보협회가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노르웨이선급협회(DNV)의 시험기관으로 지정

연구소가 세계적 권위를 가진 노르웨이선급협회(DNV)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IMO(국제해사기구) 기준에 따라 선박용품의 화재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2월 19일 노르웨이선급협회의 지정서를 전달 받았다. 이는 연구소가 선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격벽, 갑판, 방화문 및 전선관통구성부재 등 선박에 사용되는 제품의 내화도 및 불연성시험을 IMO

Res. A 754(A급, B급 및 F급의 화재시험방법) 또는 472(불연성 구조재료의 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험시설, 인력,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지정에 따라 그 동안 국내 조선기자재 제조업체가 노르웨이의 시험기관에 의존했던 시험성적서 발급업무를 국내 방재시험연구소에서 대신 받게 되어 외화절감은 물론 시간적, 기술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구소는 이미 1994년에 영국로이드선급협회(LR)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래 일본해사협회(NK), 미국선급협회(ABS), 프랑스선급협회(BV), 독일선급협회(GL)의 지정을 획득한 바 있는데, 이번 노르웨이선급협회의 지정획득으로 국내에 진출한 세계 6개 주요 선급협회의 지정을 모두 지정받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모든 선박이 운항할 때는 각국 선급협회에서 지정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IMO기준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선박용품 및 재료들을 사용하여야 운행할 수 있도록 통용하고 있다.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으로 지정

연구소는 지난 1월 18일 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3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에 의한 과학기술처 고시 제1997-1호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앞으로는 화재안전분야에 관련한 대책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일본건재시험센터와 정기협의회 개최

연구소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 동안 연구소내에서 일본건재시험센터와 제6차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해 제5차 정기협의회시 일본건재시험센터에서 논의된 건축구조부재(합성슬래브 바닥판)의 국내 시험방법인 KS F 2257에 따라 FILK에서 수행중인 합성슬래브 바닥판의 재하가열시험 참관 및 시험방법, 성능기준적용 등에 관한 서로의 발전적인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건축구조부재의 재하가열시험은 국제화 추세임을 상호 인식하기도 하였다. 한편, 현재까지의 정기협의회에서는 방내화시험분야만이 주로 기술교류가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음향분야 등 업무전반에 걸쳐 기술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연구소는 이번 협의회에서 일본의 해외시험기관 인정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으며, 국내 패널벽 제조사인 한국스타이로콘(주)이 자사 제품의 일본수출과 관련하여 방재시험연구소로부터 시험받아 작성된 내화구조 시험성적서를 일본건설성으로부터 내화구조로 인정받게된 절차를 설명하기도 했다. 일본건재시험센터의 이번 협의회 참가자는 川島謙-(중앙시험소 부소장), 棚池裕(방내화과 과장대리), 北島勝行(방내화시험과 팀장)이었다.

## 국립기술품질원 KOLAS의 추가 지정

연구소가 지난 12월 28일, 국립기술품질원의 공인시험검사기관인정기구(KOLAS)로부터 4품목에 대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추가지정을 받았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받은 시험항목은 금속과 금속제품에 대한 인장시험, 콘크리트의 압축시험, 파이프

등의 수압시험, 그리고 위험물질의 인화점시험이다. 연구소는 이미 지난 '95년 9월 28일에 국내 2,700여개 시험연구기관중 18번째로 내화시험 등 10품목에 대한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 제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품질관리체계, 시험설비 및 인적요인 등의 시험검사능력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평가기준(ISO Guide25, 59)에 의거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국가간 및 공인시험검사기관간의 시험성적서가 서로 통용될 수 있게 하여 비관세 무역장벽이 되는 기술장벽의 해소에 기여하고 또한 적절한 품질관리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제도이다.

## 일본건설성의 내화구조시험 기관 능력 인정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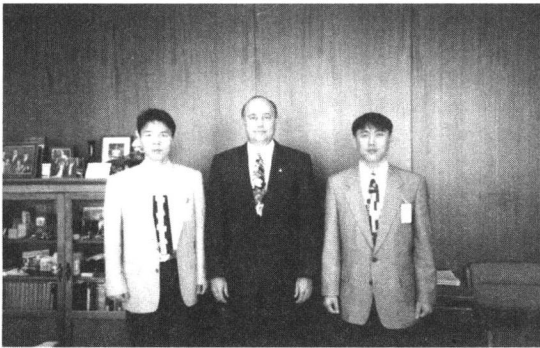
우리 연구소 방화구조부에서 한국스타이로콘(주)와 STYROCONPANEL의 일본 건설성 내화구조인정 취득을 위해 지난해 6월 28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작성·제출한 「일본 건설성 내화구조 신청 서류」가 가다롭기로 유명하고 가장 폐쇄·관료적인 일본건설성으로부터 외국제품 인정 제1호로 심의를 통과하여 지난 10월 말에 인정서를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동제품은 연간 약 30억원이상 일본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금번 용역에는 방화구조부의 이경구 부장을 중심으로 조중달 부장, 김연구 차장, 박승인 대리 등이 참여하여 약 3개월동안 연구소의 업무 및 시설, 품질매뉴얼, 시험성적서 등을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하였으며, 그동안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일정이 촉박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연구소측에서는 일본건설성으로부터 연구소의 시험능력 및 품질을 인정받음에 따라 앞으로 연구소를 통한 관련업체의 일본내화구조지정 획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미국 UL과 업무협의회 개최

연구소는 지난 10월 11일 연구소 회의실에서 미

국 UL측과 업무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UL엔지니어링 서비스의 Chief Engineer인 Dosedlo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양기관 시험업무의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많은 사항을 토론하였다. Dosedlo는 먼저 연구소의 슬라이드시청 및 시설견학을 하였는데, 견학후, 10년이라는 연구소의 짧은 역사에 비해 많은 발전을 이룬 것으로 사료된다고 그의 소감을 피력했으며, 우리가 제시한 상호 인증건의 대해서는 우선 양기관의 인증기준이 통일되어야 하는 등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미국 UL연수 실시



김기옥 대리(방재설비부)와 최문수 대리(기술지원부)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1개월동안 미국보험업자시험연구소(UL)에서 소화 및 경보설비 분야의 선진기술습득 및 국제감각 터득을 위해 시험·연구 연수를 받았다.

## IMO 방화소위원회 회의 참가

연구소 박찬선 차장(기술지원부)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영국런던에서 개최된 국제

해사기구(IMO) 제41차 방화소위원회 회의에 참가했다. 동 회의에서는 선박의 안전, 소화설비 화재안전 등을 의제로 채택했었다.

## 선박화재안전 세미나 개최



연구소는 지난 3월 19일 연구소 강당에서 선박의 화재안전에 관한 방재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근 대형 해난 사고의 빈발과 안전문화 정착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박의 화재안전 설계에 관한 최신정보를 선박안전관계자에게 보급하여 선박화재안전분야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조선기자재업체, 조선공업회원사, 선주협회, 국내외선급의 임원 및 관계자, 선박안전관련 공무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여 최신 방재기술을 이해하고 방재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세미나에서는 김태우 수석검사원(한국선급), 김명배 박사(한국기계연구원), 이덕준 책임연구원(방재시험연구소)이 각각 SOLAS와 선박화재안전, 선박의 방내화설계기법, 선박구조 및 재료에 대한 화재안전관련 시험개요의 내용으로 주제 발표하였으며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시험연구소내 시험연구시설 견학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